

# 논 두 령 에 공 심 으 실 분 들 을 찾 습 니 다

표나지 않는 익에 하객같이 보내주신 마음속에  
새삼 고마움을 깊이 머리 숙여 전합니다

자유학교 물꼬는 새끼일꾼이라 부르는 중고생 자원활동가들과 품앗이라 부르는 자원활동가,  
그리고 논두령이라고 하는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꾸려집니다.

1989년 '열린글 나눔샬터'를 시작으로 방과후활동을 하다  
1994년 첫 계절자유학교를 열어 163번째에 이르렀으며,  
1997년부터 세 해 동안 도시공동체와  
2004년부터 여섯 해 동안 상설학교를 실험하기도 했고  
십년 뒤의 생태공동체마을과 이십 년 뒤의 아이들나라(아이골)를 꿈꾼 적도 있으며,  
2017년 현재에도 여전히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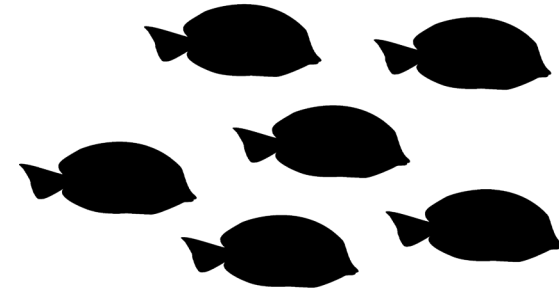
배고픈 이가 먹어야 하듯 아픈 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듯 아이들은 아무 조건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꼬도 그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주시는 도움들 허투로 새지 않게 귀히 쓰겠습니다.

① 달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② 생각날 때 뜻대로 ③ 살림살이(먹을거리든 물건으로든)로

농협 053-01-243806 자유학교 물꼬



## 물꼬 연어의 날 Home Coming Day



- 때: 2017년 6월 24일 휴날 낮 4시 ~ 25일 해날 낮 4시
- 곳: 자유학교 물꼬 '학교' 와 달골 명상정원 '아침뜨락'
- 뉘: 물꼬를 거쳐 간 벗들, 그리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충북 영동군 상촌면 대해1길 12 자유학교 물꼬  
043-743-4833(전송 043-743-0213)  
www.freeschool.or.kr  
mulgo2004@hanmail.net



물꼬 한 바퀴

## 그리웠습니다!

물꼬가 오래 살았습니다.

1989년 12월을 그 시작으로 하니 올해가 2017년도이면...

여태 남아있는 이들도 있고, 스쳐 지나고 아직 그 소식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스런 사람의 일이겠지만, 함께 배우고 나누고 땀 흘리고 웃던 시간들을 좇아 얼굴 한 번 보면 어떨지요? ‘물꼬인의 날; Home coming day’ 쯤 되겠습니다. 첫걸음 하는 이도 동행할 수 있을 테지요.

2017년도를 안식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백예순세 차례에 이른 계절자유학교도 쉬어가고 학기 중에 있는 빈들모임과 위탁 교육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럴 때 모여 보면 좋겠다 한 거지요.

(아, 물론 여전히 ‘아이들의 학교’ ‘어른의 학교’로서 자잘한 일정들이 이어져 ‘물꼬 머물기; 물꼬 스테이’도 하고 수행모임도 하고 제도학교 지원수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시간일 수 있다면...

물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도 보고, 또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도 나누려 합니다.

밤엔 ‘작은 무대’도 마련하려지요. 악기도 연주하고 시도 읽고 강연도 하고...

우리 모두 주인이면서 손님인 잔치이겠습니다.

어여 어여 오시어요.

소나무와 살구나무 사이 버선발로 쫓아나겠습니다.

자유학교 물꼬는 '아이들의 학교'이자 '어른들의 학교'  
같이 놀고 일하고 수행하며 배우고 익히는 곳!

### 학교 이념

스스로를 살려 섬기고 나누는 소박한 삶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로 솟구쳐 오르는 '나'!

## 속틀 꽃다발

### 6.24. 휴날

낮 4시	꽃봉오리- 장승깨기 시연 차꽃- 찻자리 민들레홀씨-물꼬 한바퀴 애기나리와 하늘말나리-아이들 놀자방, 어른들 쉼방
저녁 6시	이팝꽃- 때건지기 (밥상)
7시	배롱꽃- 작은 무대(시인 이생진 샘과 아이들)
10시	불꽃- 모닥불 앞 夜단법석

### 6.25. 해날

아침 8시	불두화- 해건지기 (아침 수행)
9시	이팝꽃- 밥상
10시	담쟁이덩굴- 걷기 혹은 말기 (달굴 ‘아침뜨樂’, 계곡)
낮 1시	이팝꽃- 낮밥
2시	개나리-갈무리 모임

## 물 꼬 머 물 기 ( 물 꼬 스테 이 )

템플스테이, 수도원스테이... 물꼬도 수행 공간들처럼 머무는 제도가 있어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싶은 때,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때, 마음을 살펴야할 때, 마음이 저린 때, 따스 밥상이 필요한 때, 평화가 간절한 때...그런 마음이 인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행, 일, 예술활동, 쉼, 건강한 밥상이 함께합니다.

참가 일정. 달마다 셋째 주(해날부터 다음 해날까지 8일) 저녁 5시 30분

물꼬의 평소 흐름을 따라 지내는 ‘체험형’  
밥 때를 빼고 자신의 흐름대로 지내는 ‘휴식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